

# 眉叟 許穆과 嶺南學派

안 병 걸\*

## 目 次

- I. 서론
- II. 본론
  - 1. 『記言』에 담긴 영남의 유학자들
  - 2. 허목의 영남 유력
  - 3. 『記言』에 실린 영남학자들
- III. 결론 : 허목이 본 영남학자들

## I. 서론

퇴계학파가 형성된 것은 16세기 중엽의 일이다. 17세기는 성리학의 이론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한편,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그것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건국 초기부터 지도이념으로 받들었던 유학이 온 나라의 정신적 가치로서, 생활적 규범으로서 자리잡기는 17세기에 이르러서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는 사상, 문화,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시대였다. 퇴계학맥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학파와 별도로 형성된 기호학파가 대립하면서, 두 집단은 이기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관점을 달리 하였다. 나아가 인간의 심성론과 수양론, 사회실천론으로서 예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주장이 모두 달랐다. 학파의 분화는 필연적으로 집단적 정파의 분열로 비화된 것이다. 16세기 성리학이 이룩한 이론적 심화를 이은 것이 17세기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분열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 안동대학교 국학부 동양철학전공 교수

성리학의 관념성에서 탈피하여 탈주자학적인 경향의 학문이 나온 것도 바로 17세기의 일이다.

이러한 시기에 일생을 보낸 유학자가 眉叟 許穆이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난 근기 출신 유학자로서 영남학파의 학문, 특히 퇴계학맥을 근기지방에 전수한 유학자로서 이미 유명하다. <近畿地方의 退溪學派>라는 주제로 《退溪學派의 地域的 展開》를 다루는 학술 세미나에 허목을 살피는 이유도 이러한 점에서 기인하였다.

기존의 허목에 대한 평가는 鄭述를 통하여 영남학파의 유학을 전수 받았고, 국가의 전례 문제를 둘러싼 예송의 한 가운데에서 활약을 했던, 예학의 대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허목의 문집인 『記言』에는 영남의 유학자들과는 다른 성격의 글이 엄청난 분량으로 실려 있다. 이 책은 일반적인 문집과는 우선 편집 체제부터가 다르다. 조선시대의 학자들의 문집이 거의 그 사후에 후학들에 의하여 정리되는 것에 비하여, 허목은 생전에 자신의 글을 직접 정리하여 편찬을 정하였다. 따라서 다른 학자들의 문집에 비하여 저자 자신의 학문적 주견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또 일반적인 문집이 시문집 중심으로 문체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비하여, 『기언』은 내용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어 허목 학문의 개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영남의 유학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 때문에 오늘날 허목의 학술을 연구하는 이들 사이에는 허목의 학문에 영향을 주었을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하여 다각도로 규명하고 있다.

요컨대 허목은 당대 영남 유학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다양한 저작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의 문제의식과 사유체계가 영남의 유학자들과는 다른 지평에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후학들에 의하여 영남의 퇴계학을 전수해 준 선현의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허목이 영남의 유학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다.

## II. 본론

### 1. 『記言』에 담긴 영남의 유학자들

『기언』에는 허목의 독자적인 편집에 의해, 여러 군데로 분산하여 둔 전기 자료가 많이 보인다. 거기에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만이 아니라, 그가 역사책이나, 선현들의 기록, 또는 전문에 의해 보고들은 다양한 형태의 인물기록이 있다. 여기에 영남 출신 학자들에 대한 기록도 풍부하게 남아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	권	소분류	제목	비고
原集中篇	8	儒林	龜巖集跋	李穡(1512-1571) 퇴계 문인
		人物	河謙齋哀詞	河弘度, 남명 학맥, 河受 - 문인
			東岡先生文集序	金宇瀾(1540-1603) 남퇴 양문
			忘憂堂遺卷序	郭再祐(1552-1617) 남명 문인
			哭桐溪文	鄭蘊(1569-1641) 내암 한강 문인
			桐溪遺稿跋	鄭蘊
	11	清士列傳	東山翁	鄭斗(미상)
	16	祠	龜山祠記	李禎
	19	丘墓三	藤庵處士銘	裴尙龍(1574-1655) 한강 문인
	20	丘墓四	洪靜而碣	洪宇定
	21	羈旅	陶丘公事	李濟臣 남명 문인
原集下篇	26	世變	崔守愚事	崔永慶 남명 문인
	38	東序記言1	西厓遺事	柳成龍(1542-1607) 퇴계 문인
		東序記言2	德山碑	曹植(1501-1572)
			文穆公壙銘	鄭逵(1543-1620) 남퇴 양문
			桐溪行狀	鄭蘊
續集	56	儒林	寒岡先生文集序	鄭逵
別集	10	跋	書南賈趾遺卷後	南致利 퇴계 문인
			題五先生禮說後	鄭逵
	12	祭文	祭張旅軒文	張顯光(1554-1637) 한강 종유
			謁繪原文穆廟文	鄭逵
	13	哀詞	藤庵處士哀詞	裴尙龍
			李生道長哀詞	李道長 한강 문인
			寒崗先生挽詞	鄭逵
	14	雜著	佔畢齋金先生墓碣識	金宗直(1431-1493)
			讀權忠定公逸稿	權攢(1478-1548)
	16	丘墓文	蘇齋先生神道碑銘	盧守眞(1515-1590) 회계 문인
			旅軒張先生神道碑銘	張顯光
			忘憂堂郭公神道碑銘	郭再祐(1551-1617) 남명 문인
	17	丘墓文	芝山先生墓碣銘	曹好益(1545-1609) 퇴계 문인
			贈參判金公墓銘	金涌(1557-1620) 퇴계 학맥, 학방 문인
	19	丘墓文	崇禎處士墓銘	金是樞(1598-1669) 퇴계 학맥, 金涌 문인
	20	丘墓文	朴松堂先生碣銘	朴英(1471-1540)
	21	丘墓文	進士楊君墓銘	楊畹(1597-1650)
			郡守權公墓誌	權東輔(1518-1592) 퇴계 문인
	23	丘墓文	河謙齋墓銘	河弘度
	24	丘墓文	石潭李公墓碣	李潤雨(1569-1634) 한강 문인
	25	丘墓文	東巖公墓陰記	李詠道, 퇴계 손자
			龜巖李先生墓碣銘	李禎
			瞻慕堂林先生墓碣銘	林莢 남명 교유
			茅溪文先生行狀	文緯(1554-1631) 한강 문인
			洛川襄先生行狀	襄紳(1520-1572) 남 퇴 양문

<『記言』에 실린 영남 유현 기사 일람>

## 2. 허목의 영남 유력

1610년에 부친 許喬의 임지인 고령으로 내려온 이래, 1623년에 임실로 떠나기까지, 허목은 거창과 산음 등 영남 지방의 남부에서 13년을 살았다. 허목은 거창에서 지내던 1617년 茅溪 文緯를 자주 찾아가 배웠다고 한다. 또 같은 해에 종형 許厚와 함께 이웃 고을인 성주로 寒岡 鄭述를 찾아가 배우기 시작하였다. 정구에게 배우기는 그 3년 뒤인 1620년까지 지속이 되는데, 그 해 1월 정구가 세상을 떠나자, 허목은 스승을 위하여 3개월의 加麻의 服을 입었고 그 해 4월의 장례에 참여하여 제문을 지어 바쳤다.

1624년, 허목은 경기의 광주 우천에서 살았다. 그곳은 그의 처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곳의 자봉산에 들어가 서경을 익혔다. 1626년에는 동학에 들어가 재임이 되었는데, 당시 유신 朴知識가 인조의 생모 상사를 당하여 왕비로 추존하자고 계청을 하자, 국가의 전례를 어지럽혔다고 비판하고, 儒籍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 버렸다. 이 때문에 임금의 노여움을 산 그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는 停舉 조치를 당하였다. 이 벌은 얼마 뒤에 해제되었으나, 그는 과거를 보지 않았다.

이후 그는 독서에 전념하면서 기회가 닿는대로 명승과 고적을 찾아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였다. 1636년 겨울의 병자호란은 그가 다시 영남으로 내려가는 계기가 되었다. 난을 피하여 일시 영동지방에 가 있었던 그는, 그 다음 해 2월 강릉에서 원주를 경유하여 영남으로 내려갔다. 이후 의령과 사천, 창원, 칠원 등지에서 1645년까지 10년의 세월을 보낸다. 이 기간 중의 행적을 대충 살펴보면, 1637년 4월 상주를 지나다가 李垸의 영위에 조문을 하였다. 이준은 柳成龍을 통해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당대의 거유이다. 1638년 2월에는 張顯光의 서거 소식을 듣고 제문을 지어 애도하였다. 별도로 1673년에는 그의 신도비명을 지었다. 1639년에는 의령에 있으면서, 李禎의 유고를 정리하였다. 허목은 그의 벗 趙綱이 지은 서문과 자신이 쓴 발문을 붙여서 『귀암문집』을 간행하였다. 또 이 시기에 사천의 유림들이 세운 귀암의 사당에 비문을 지었다. 이즈음에 그는 남해 앞 바

다를 유람하면서 《범해록》을 남겼고, 지리산을 유람한 뒤에는 《청학동기》를 지었다. 호남의 명승 천관산과 창원의 월영대를 유람하여 각기 기문을 남겼다. 1642년에는 의령 일대를 유람하던 도중에 鄭蘊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하늘이 斯文을 망쳤으니, 어찌 나라만 병 들겠는가?”라고 탄식하고서 제문을 지어 애도하였다. 1644년에는 동해안을 따라가면서 유람하다가, 청량산을 거쳐 도산서원을 방문하여 상덕사에 참배하였다. 이 때의 기록은 《청량산기》이다.

1645년 9월 연천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는, 영남지방에서 선현들의 유적을 찾고, 그 지방의 선비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그러나 1647년 의령에 머물고 있던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고향으로 反葬한 이후로는 주로 연천에 머물면서 독서와 저술에 전념하였다.

허목이 관직을 받은 것은 효종 원년인 1650년 1월이다. 처음 관직은 정릉참봉인데, 한 달을 근무하다가 사퇴하고 집으로 돌아 왔다. 1651년 10월, 다시 내시교관이 되었으나, 그 이듬해 2월 사직하고서, 그 다음 달에 남도로 유람을 떠났다. 이 행보에 그는 호서를 경유하여 함양에서 林薰, 林芸 형제의 유적과 10년 앞서 세상을 떠난 정은의 옛 집을 방문하였다. 그 뒤에 의령을 거쳐 사천에 내려가 이정의 묘비문을 지었다. 이 때의 유람을 마친 뒤에는 연천 집에 머물면서 저술에 열중하였다. 『기언』에 실린 글의 대부분이 이 시기의 글이다.

앞에 정리한 영남학과 제현들에 대한 글은 대부분 그의 생애 후반기인 이 시기 이후에 지은 것이다. 이제 허목이 남긴 영남학자들에 관련된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南冥 曹植과 그 문인들.

둘째, 退溪 李滉의 문인들.

셋째, 寒岡 鄭述와 그의 종유 문인들.

### 3. 『記言』에 실린 영남학자들

#### (1). 남명 조식과 그 문인들

허목은 1672년에 曹植의 신도비문을 지었다.<sup>1)</sup> 조식의 신도비는 『기언』 39권의 《東序記言》 첫머리에 「德山碑」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또 조식의 문하에는 적지 않은 문인들이 있었는데, 『기언』에 실린 이들은 崔永慶(「崔守愚事」), 李濟臣(「陶丘公事」), 趙宗道(「贈吏曹判書趙公墓碣銘」), 郭再祐(「망우당유권서」, 「망우당신도비명」), 裊紳(「洛川裊先生行狀」) 등이고, 이황의 문하에도 출입한 金宇顛(「東岡先生文集序」)과 鄭述(「文穆公壙銘」, 「寒岡鄭先生文集序」)가 있다. 또 조식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았으나, 河沆과 河受一을 통하여 조식의 학문을 접한 河弘圖(「河謙齋墓銘」)에 대한 글이 있다. 그밖에 최영경의 문인인 金昌一(「四寒先生碣」)도 이 범주에 넣어도 무방할 것이다. 조식의 신도비문인 「덕산비」에서 그의 학문과 관련된 부분만을 아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豪氣가 絶倫하였고 스스로 奇才로 자부하였다. 百家를 널리 본 다음에 요약을 하여, 일가의 학문을 이루었다. 論難答述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헛된 말은 실천에 무익하다고 여겼다. 학문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自得을 앞세우고 高明을 귀하게 여겼다. 책을 열지 않고 강론하기를, “오늘날의 학자들은 성리만을 高談할 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實行이 없다. 성인의 뜻은 前儒들이 이미 모두 말했다. 학자는 알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실행하지 못할 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 得力의 깊이는 나의 성실함에 달려 있다. 눈을 떠야만 천지일월을 볼 수 있다. 경서를 담론하기는 反求하여 자득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책을 볼 때도 장구를 따라 일일이 해석하지 않고 그 宗旨만을 요약할 뿐이었다.

일찍이 「佩劍銘」을 지었는데, “內明者敬, 外斷者義”라고 하였고, 벽에 ‘敬義’ 두 글자를 크게 써 붙이고서 “우리 집안의 이 두 글자는 천지에 일월이

1) 허목은 삼척부사로 나가 2년 간을 봉직하고 돌아온 1662년 이후, 연천에 살면서 저술에 열중하고 있었다. 당시의 그는 1659년의 기해예송 이래로, 윤희와 더불어 남인측 예학의 이론가로 이름이 나 있던 때였다.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병을 앓으면서 정인홍과 김우옹을 불러 경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를 “用功이 이미 익어서 胸中에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나는 아직 이 경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라 말하고서 세상을 떠났다. 德溪, 守愚, 寒岡, 東岡 등의 여러 현자가 스승으로 섬겼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뒤에 吳健 등 네 사람의 제자와 이황의 평을 붙여서 글을 맺었다.<sup>2)</sup> 조식은 성리에 대한 관념적 탐구보다는 궁행 실천에 힘쓴 학자였다. 조식의 기상을 배운 그의 제자들은 우뚝한 행적을 남긴 이들이 많았다. 그 중에는 임진왜란에 몸바쳐 싸운 광재우, 조종도 같은 이도 있었고, 당화에 희생된 최영경 같은 이도 있다. 또 은둔해 살면서 기이한 행적을 남긴 이제신 같은 이도 있었다. 또 정인홍이 있는데, 그 역시 높은 기상으로 한 때 이름이 나서 당대에는 남명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선조 말년 이후 대북 정권에 참여하면서, 전횡을 휘둘러 결국 반정 이후에 처형된 비극적인 인물도 있었다. 독립된 글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기언』의 도처에 정인홍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인다.

이 중에 독특한 형태의 기사로 소개된 이가 최영경이다. 『기언』 권26의 《世變》조에 「虛庵事」 등과 함께 「崔守愚事」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수우선생은 남명의 제자인데, 성품이 매우 효성스러웠다. 처음 남명을 뵈니, 남명이 高士라고 인정하였다. 선조 때 지평으로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다. 뒤에 기축옥사에 연좌되어 죽었다. 애초에 성흔과 사이가 매우 좋았다. 그러나 성흔이 심의결과 친한 것을 보고서, 결국 절교하고 말았다. 당시 정철이 명망과 지위가 매우 높았는데, 자기 스스로 節儉을 좋아한다고 이름을 내므로, 선생은 “성품이 강박한 소인이라”고 하였다. 정철이 그 말을 듣고 한을 품었다. 나중에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정철이 죄수를 논하는 자리에서 “영남의 선비에 적과 통하는 자가 있다.”고 하고서 여러 가지로 꾸며서 선생을 옥에 잡아 가두었는데, 선생은 결국 옥중에서 죽고 말았다. 뒤에 임금이 후회하고서 벼슬을 追劄하고 처자에게 廩料를 주게 하였으며, 두 신하를 몹시 원망하여 ‘奸渾毒澈’이라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2) 『기언』 39권, 「덕산비」.



선생은 탁월하고 고상한 기개가 있었으며, 흰머리와 수염 눈썹 등 모습이 매우 엄연하였다. 상국 이항복이 당시 推鞠을 하였는데, “죄수를 심문하다가 거인을 보았노라”고 하였다. 『백사유고』에 《己丑錄》이 있어 선생의 원통한 일이 매우 상세하게 실려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자손들이 용사자의 말을 들어 숨겨버렸고, 허위로 꾸민 《기축록》이 세상에 전한다.

이상이 「최수우사」의 큰 줄거리이다. 최영경과 성혼, 정철의 불화, 그리고 정철에 의한 최영경의 원통한 죽음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기축옥사에 대한 이야기는 허목이 존경했던 정개청에 관한 글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 등, 鄭仁弘에 대한 비난 못지 않게 『기언』에는 鄭澈에 대한 비판이 자주 보인다.

최영경과 함께 기축옥사에 걸렸다가 풀려난 이로 조종도(1537 - 1597)가 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증이조판서조공묘갈명」이다.<sup>3)</sup> 조종도는 임난 때의 의병장으로 유명하다. 기축옥사에 걸려들었다가 풀려 나온 그는 임진년에 왜구가 침입하자, 초유사로 내려온 김성일을 도와 각 군현에 격문을 돌리고 의병에 참여하였다. 전공을 세워 단성현감이 되었는데, 전란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재까지 털었다. 함양군수로 있던 때에 정유재란이 있었다. 전열을 재정비한 왜군이 쳐들어 오자, 안음현감 郭越과 함께 항전하다가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허목은 다음과 같은 말로 조종도의 인품을 설명하였다.

조공은 지극한 성품과 높은 행실이 있었다. 세상에 도가 날로 더러워짐을 보고는 마시고 취하며, 웃고 즐기면서 스스로 戲謔하여 호를 “大笑軒”이라고 하였다. 성품이 牢落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않았다. 상국 유성룡이 일찍이 말하기를, “伯由는 걸보기는 방탕한 것 같으나, 안으로 지킴이 견고하고 확실하여 烈丈夫의 威風이 있다.”고 하였다.

왜구의 침입에 맞서 의병을 일으킨 이가 꼭재우이다. 『기언』에는 그에

3) 『기언』 별집 19권.

관한 글은 두 편이 있다. 하나는 「망우당곽공신도비명」이고<sup>4)</sup> 다른 하나는 「망우당유권서」이다. 이 중, 신도비는 1665년에 지었다. 이에 의하여 곽재우의 일생을 정리하면, 그는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임금의 뜻을 거슬린 글귀가 있어 합격이 취소되고 말았다. 그 뒤에 과거를 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강가에서 낚시로 소일하였다. 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사재를 털어 장사를 모집하고 의령에서 기병하여 연전연승하였다. 그의 힘을 입어 강우지방은 탈없이 평온하였다. 나라에서 방어사에 임명하여 모든 의병을 그의 휘하에 예속시켰다. 전쟁이 끝난 뒤에 절도사가 되었으나, 상소를 하여 시국을 말하고 이내 관직을 버리고 돌아왔다. 한 때 탄핵을 받아 영암에 부처 되었다가 얼마 뒤에 풀려났다. 그는 비슬산에 들어가 곡기를 끊고 신선의 비결을 배웠다. 광해군 2년에 함경도관찰사로 임명을 받았으나 상소를 올리고 귀향하였다. 2년 뒤에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살해하려하자 그는 상소하여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 그 5년 뒤인 1617년에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상이 망우당 신도비의 줄거리이다. 이에 이어서 허목은 다음과 같은 명문을 지어 바쳤다.

공은 평생에 믿음이 아니면 실천하지 않았으며, 의리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았다. 큰 난리를 만나자 솔선하여 의병을 격려하고 적을 토벌하여, 그 충의가 사방에 널리 알려졌다. 성대한 명성으로 患害가 미치지 않았다. 명분은 지키기 어렵고 공은 이룩하기 더욱 힘들다. 微를 알고 幾를 아는 철인은 멀리 떠나 은거하니, 확고하고 편안하다.

허목이 남도에서 우거하던 시절에 지은 글을 따로 묶어 《羈旅》라는 이름으로 편집한 것이 『기언』에 실려있다. 여기에 口碑傳聞을 통해 들었음직한 기사가 담겨 있다. 이제신의 사적인 「도구공사」이다.

도구공의 이름은 이제신이다. 자는 彥遇인데, 세상을 피해 숨어살면서 ‘愚’

4) 『기언』 별집 16권.

자로 바꿨다. '도구'는 그가 살던 지명이다. 젊은 시절 安宙선생에게서 詩書를 배웠다. 약관에 국학에 들어가 金範, 裊紳과 이름이 비등하였다. 성품이 익살스럽고 활달하여 이름난 산택을 찾아 노래하며 즐겼다. 남명의 문하에 입문하였는데, 남명은 그를 고사로 인정하였다.

이 이야기의 뒤를 이어서 허목은 도구공이 일찍이 天嶺 들판에서 태수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술이 소리내어 우는 것을 보고서 임금의 죽음을 알아 맞추었다는 이야기와 왜란이 발발할 것을 예견하고서 재물을 모두 친지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사실들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이제신은 일찍부터 이름이 나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는 그가 왜 숨어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의 기행과 특이한 능력만을 담았다.<sup>5)</sup>

김우옹은 정구와 함께 조식과 이황 두 문하에 함께 출입하였다. 허목이 1665년 71세 때에 지은 글로 「동강선생문집서」가 『기언』 원집 인물편에 실려 있다.<sup>6)</sup> 이 글의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5) 허목이 남방에서 머물렀을 때 들었음직한 이야기가 《청사열전》에 실려 있다. 진주에 살았던 기인 정두에 관한 이야기이다. 김시습, 정희량, 정립 등과 함께 정두의 이야기는 '동산옹'이라는 소제목으로 《청사열전》에 실려 있다. 동산옹은 성균진사 鄭斗라는 분이다. 본관은 진주이며 그 고을 동산에 살았기 때문에 후인들이 동산옹이라고 불렀다. 숨어살면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토정이 남방에 유람 갔을 때 남명을 찾아 본 다음에 다시 동산옹을 만났다. "고사로다, 강우에 이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진주 부로 들의 말에 의하면, 옹은 달짐승의 말을 알아들었고, 산 속에 들어가서 피리를 불면 날짐승이 와서 따랐다고 한다. 옹이 죽을 때 유언하기를, "멀지 않아서 동방이 크게 어지러워질 것이다."라 하고, 동산 길쌈을 가리키며, "내가 죽거든 이곳에 장사하라."한 다음에게 아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어무 해에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 장사지낼 사람이 없을 테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곳에 유해를 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진년에 과연 왜구의 침입이 있었고, 아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정두는 이황 문인인 귀암 이정 친구로서 그의 행장을 지었다고 한다. 공교롭게 이제신과 정두가 모두 진주에 숨어살았다는 점이 이채롭다.

6) 《인물편》에는 이원익 「이문충공유권서」, 이항복 「백사이상국사」, 광재우 「망우당유권서」, 정온 「곡동계문」, 조경 「제용주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분류명은 《인물》이라 하고서 글의 형식은 책의 서문, 기사, 제문 등을 섞어 두었다.

선생은 처음에 남명에게 배웠고, 나중에는 도산에서 대도를 배워 일대의 이름난 선비가 되었다. 소경왕 때에 선생은 經術로써 좋은 직위에 발탁되어 늘 곁에서 임금을 모시면서 보필한 것이 많았다. 당쟁의 화를 당하여, 갖은 고생을 겪었어도 근심이나 원망을 보이지 않았다. 자연을 감상하여 酬唱한 작품을 보아도 역시 천리를 즐겼고 의리에 편안하였다. 훌륭하다. 덕 있는 이는 참다운 말이 있도다.

나는 문하에 나아가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였어도 어른들의 뒷이야기를 어깨 너머로 들은 적이 있다. 이문충공은 선생을 일컬어 “확고하고 청렴함은 옛날 곧은 이의 遺風이다.”라고 하였고, 정선생은 조문에서 “군자의 거룩한 절개는 백대 뒤라도 사람을 일깨워 頑惡한 자로 청렴하게 하며, 풍속을 가다듬기에 충분하니, 후세에 주는 교훈이 많다.”라고 칭송하였다.

이상은 김우옹의 문집의 서문이므로, 비지문자처럼 그의 일생을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 글에서 허목은 김우옹의 인격과 글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표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한 김우옹은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고, 동문인 정구를 추천한 일도 있었다. 위의 글에서 말한 ‘당쟁의 화’는, 기축옥사가 벌어졌을 때에 정여립과 가까웠다고 하여 파직을 당하고 함경도 회령으로 귀양간 일을 말한다.

조식과 최영경의 일생을 기록한 글에서는 그들의 빼어난 기상을 그려고, 조종도와 광재우에 대한 글에서는 의병사적을 중심으로 한 충의를 그렸다. 그런가 하면, 이제신의 일생은 그의 기이한 이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여, 조식 문하의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삶의 양상을 진술하고 재미있게 기록하였다. 대체로 남명 문인들에 대한 허목의 인식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지 않는 탁월하고 높은 기상에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 (2). 퇴계 이황의 문인들

조식에 대하여는 신도비명을 지었으나, 이황을 독립된 주제로 한 글은 없다. 1644년 청량산을 거쳐 도산서원을 방문하였던 사실을 적은 《청량산기》에도 ‘상덕사에 들러 참배하였다’는 간단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다만 유성룡과 조목, 정구 등 그의 문인들을 말할 때, 퇴계선생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짧게 기록하였을 뿐이다. 또 이황의 손자 李詒道와 손서 金涌의 일생을 적은 묘갈명에도 이황과의 관계만을 적었을 뿐, 더 이상의 적극적인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sup>7)</sup>

이황의 문인들 관련 저작 가운데, 허목이 가장 많은 편수의 글을 남긴 것은 이정이고, 가장 큰 존경을 표시한 이는 유성룡이다. 《동서기언》의 첫 머리 『기언』 권38에 「서애유사」라는 제명으로 실려 있다. 이 글은 허목의 나이 76세인 1670년의 저작이다. 유성룡은 김성일, 조목, 정구와 함께 이황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특히 그의 후학들을 통해 이황의 학문을 후대에 전한 학자로 유명하다. 이 글도 유성룡이 이황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실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학자로서의 유성룡보다는 25세의 나이로 대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이후, 1598년 몰려날 때까지 벼슬 생활 중의 큰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그 중에도 특히 임진왜란 중에 수상으로서 군국 기무를 맡아 국가의 위기를 살려낸 그의 공로가 자세히 실려 있다.

그러나 만년의 유성룡은 불붙은 당쟁 속에 반대당의 탄핵을 받아 파직을 당하고 이어서 관작마저 삭탈을 당하였다. 특히 정인홍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유성룡을 헐뜯었다. 1603년 다시 풍원부원군의 관작을 회복하였고, 1604년에는 호성공신에 책봉되었으며, 1605년에는 봉조하가 되었다. 1607년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상과 같은 유성룡 일생의 큰 사건을 정리한 뒤를 이어서 허목은 다음과 같은 말로 글을 맺었다.

7) 이황의 문인 가운데 『기언』에 글이 실린 것은 유성룡 「서애유사」, 조호의 「지산선생 묘갈명」, 이정 「귀암이선생갈명」, 권동보 「군수권동보묘명」이 있고, 이정 「귀암문집 발」, 조목 「월천문집서」, 남치리 「서남비지유권후」 등은 그들의 유저에 덧붙여 지은 글이 있다. 또 이황의 손자인 이영도 「동암공묘유기」와 김성일의 조카 김용 「증참판 김공묘명」과 종손자 김시온 「승정처사묘명」에 대한 비지문자가 있다.

공은 나라가 위태로운 시기에 將相의 重任을 한 몸에 받았다. 의리를 밝게 살피서 일에 바르게 임하였으며, 충성을 다할 뿐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다. 공의 행사를 살피 볼 때, 요점은 시종 도덕의 바른 입장에 귀착되니, 공이야말로 덕과 지혜와 술수와 지략을 지니고, 예악으로 다듬은 분이라 하겠다. 온 힘을 다하여 주선하여 위태로운 나라를 부지하여 끝내 왕업을 다시 안정시키고, 백성들이 부자 형제가 서로 보존케 하여 지금까지 의식을 즐기고 편안히 살며 본업을 즐기게 한 것은 그 누구의 힘이겠는가?

유성룡은 이덕형, 이항복, 이원익 등과 함께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구해낸 공로를 세운 대표적인 충신이었다. 이런 이유로 「서애유사」를 그의 저작 중에도 중요한 글을 모은 《동서기언》의 첫 머리에 올려놓은 것이리라.<sup>8)</sup>

병자호란 뒤에 의령에 우거하던 때인 1639년에, 허목은 이정의 유고를 정리하여 문집을 발간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이 때 그 문집의 발문을 지었고, 그 이듬해에는 이정을 모신 귀암서원의 사당인 귀산사의 기문을 지었다. 1652년 3월, 허목은 남쪽으로 유람을 떠났다. 그 전년 10월부터 근무하던 내시교관을 사임한 뒤였다. 그는 호서지방을 경유하여 의령 중제의 집에 들렀다가, 사천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그는 이정의 비문을 지었다.<sup>9)</sup>

사천이 본관인 이정의 호는 귀암. 사인 李潭의 아들로 1512년에 귀암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계는 시조에서 고조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12세인데, 대대로 진사에 합격한 사족으로 이름났다고 한다. 이정은 17세가 되던 해에 사천으로 귀양 온 宋麟壽를 찾아가 배웠다. 25세인 1536년에 장원으로 급제한 그는 성균관 전직에 올랐다. 그 6년 뒤에는 예조정랑을 거쳐 영천군수가 되었는데, 그 즈음에 이황을 찾아가 제자의 예를 갖추

8) 『기언』 권38에서 40권의 《동서기언》에 실린 글은 「서애유사」를 비롯하여 「오리 이상국유사」·「강승지유사」·「덕산비」·「문목공광명」·「동계행장」·「용주시장」·「용주신도비」·「권판서비명」인데, 모두 허목이 존경하였던 선배들에 대한 기록이다.

9) 『기언』 별집 25권, 「귀암이선생갈명」.

었다. 1552년에는 부친의 복을 마친 뒤에 성균관의 사성이 되었는데, 마침 이황이 대사성이었다. 당시 성균관의 학예가 많이 흥기되었다고 한다. 이후 승지, 병조참의, 대사간을 거쳐 경주부윤으로 나갔다. 경주에서는 西嶽精舍를 짓고 제생들을 모아 강의하였다. 이후 東都의 교육이 성대하다고 칭송을 받았다. 호조참의로 들어 왔다가 순천부사가 되었는데, 그곳에는 일찍이 金宏弼이 귀양을 왔다가 죽은 곳이었다. 이정은 그의 유적을 찾아서 景賢堂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55세 되던 해에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예제대로 상복을 입었다. 그런 중에 명종이 승하하여 국상이 나자, 임금을 위하여 참최복을 입었다가 다시 재최복을 입고서 남은 상기를 마쳤다고 한다. 선조 원년에 부제학으로 불렸으나, 나가지 않고 임금을 勸戒하는 상소 수천언을 지어 올렸다. 이후 관직을 받지 않고, 귀암정사에서 제생들과 함께 강론하다가, 63세인 1574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상이 「귀암선생비갈문」을 요약한 것이다. 그 뒤를 이어서 허목은 다음과 같은 글로서 이 글을 마쳤다.

공은 단정하면서 정성스럽고, 너그러우며 엄하다. 옛 도를 좋아하고 선행을 즐겼다. 喪祭를 삼가고 은의를 도타이 하여, 집에서 지낼 때나, 관직에 있을 때에나, 후진의 교도에 열중하였다. 만년에 더욱 독실하여 학문을 일으키고 글을 숭상함을 자신의 책무로 삼았다. 특히 송 이후 제유의 도학서가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보급된 것은 공이 처음 刊布하였다고 한다. 저술인 「性理類編」, 「景賢錄」이 세상에 유전되고 있다.

허목이 이정을 이토록 칭송한 이유가 있다. 벼슬길에 나선 이후에도, 이정은 항상 학문을 탐구하였다. 특히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고을의 유품을 진작시켰던 것이다. 모친의 상을 마친 뒤에는, 관직을 떠나 고향에 은거하면서 후진들을 양성하였다. 이정이 세상을 떠나고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후학들은 그의 유작을 정리하여 문집으로 간행하였고, 서원을 세워 그를 제향 하였다. 마침 그 시기에 허목은 남

도에 우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귀암문집 발간에 적극 동참하였던 것이다. 『기언』에는 또 「귀암선생문집발문」이 실려 있다. 이 글은 허목의 나이 45세인 1639년에 지은 글이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내가 도산의 유적을 읽을 때에, 제자들의 문답 가운데, 귀암공 운운한 것을 많이 보았다. 도산 제자인 공은 옛 것을 좋아하고 학문을 즐겼으니. 吳德溪, 盧玉溪가 공에게 쓴 제문에도 모두 그렇게 일컬었다. 또 동산옹의 논찬이 있는데, 그의 언행출처를 함께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하였다. 공의 학문은 효제에서 비롯하여, 성명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고, 萬事萬物에 사무쳤으니, 예를 알고 본성을 이루는 것이 그 학문의 요점이었다. 이제 이 글을 읽어보매 공이 도산 학문의 精約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이황의 만년 제자로 조호익(1545 - 1610)이 있다. 「지산선생묘갈명」이 있는데,<sup>11)</sup> 이 글은 허목이 세상 떠나던 해인 1682년에 지은 것이다. 조호익은 8세에 취학, 16세에 외숙인 周博에게 나아가 글을 배웠다. 23세에 도산을 찾아가 이황에게서 학문하는 법을 들었다. 27, 8세에 연이어 부모상을 당하였다. 3년이 지났으나, 마침 인순왕후의 국상이 있어서 禫祭를 치루지 못하였다. 그 즈음 경상도는 군사를 병적부에 올리는 일을 하였다. 그 일을 담당하던 도사 崔滉이 그를 한정으로 올렸다. 閑丁이란 고의로 군역을 기피한 장정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아직 부모상의 담제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군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다. 결국 이 때문에 豪強律에 묶여, 평안도의 江界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조호익은 이

10) 『기언』에는 「백인재유고서」라는 글이 있다. 그 첫머리에서 허목은 오리정승 이원익에게 들은 말로 시작하였다. 즉 “상국께서 남도 인물을 논할 때에 반드시 사상이상사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상사와 미처 교류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뒤에 그 자손들을 보니 그가 끼친 풍도와 여운이 아직도 있었다. 이번에 그 유편을 읽어보니, 도를 믿고 옛것을 좋아하여 세속에 더럽혀지지 않음이 있었다. 상사의 휘는 곧변, 귀암 이선생의 손자이다.”라고 하였다. 이 글은 귀암이정의 비문을 지었던 1562년의 다음 해에 지은 것이다.

11) 『기언』 별집 17권, 「지산선생묘갈명」.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적소로 떠나가 그곳에서 17년이나 살았다. 그곳에서도 항상 글을 읽었고, 禮讓을 숭상하므로 원근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이에 학규를 정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니, 그 고장 사람들이 비로소 예속을 알게 되었다.

임진년에 왜구의 침입을 받아 임금이 서쪽으로 파천을 하였다. 이 때 유성룡의 요청에 의하여, 임금은 그를 석방하고 의병을 모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관서지방을 돌아다니며 장정 오백 명을 모았다. 평생 글만 읽던 선비였으나, 사졸들과 고락을 같이 하자, 그들은 죽을힘을 다 하여 싸웠다. 왜적을 토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쳐 안주목사가 되었는데, 1년 만에 잘 다스려 임금으로부터 表裏 한벌을 하사 받았다. 전란이 끝난 뒤에, 영천의 지산에 거처를 정하고 제생들과 함께 학문 탐구에 몰두하였다. 선산과 남원부사를 제수 받았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1609년 선조 임금이 승하하자, 서울에 올라가 哭班에 참여하고 돌아온 다음 해에 65세로 세상을 떠났다. 「心經質疑考誤」, 「家禮考證」 등 저술이 많다. 뒷날 鄭經世의 주청에 따라 이조참판에 증직되었고, 영천과 성천의 유림들이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낸다.

이상이 「지산선생갈명」 줄거리이다. 이 글의 끝에 허목은 다음과 같이 명을 지어 바쳤다.

궁해도 원망하지 않고 귀하게 되어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성숙한 덕의 아름다움이며, 통달한 뜻이 있어 예를 숭상하고 솔직하여 자랑하지 않았음은 덕을 좋아한 절개로다.

조호익은 부당한 처벌을 받고도 그것을 받아 들였다. 이천리나 떨어진 귀양지로 옮겨가서도 학문을 좋아하여 제자들을 가르쳤다.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한 뒤에, 마침 전란을 당해서야 겨우 풀려났다. 국가의 위기를 당하여 의병을 조직하고 왜적을 물리치기에 힘을 쏟았다. 전공을 세워 여러 벼슬을 지냈는데, 전란이 종식되고 고향으로 돌아오자 더 이

상 관직을 받지 않고 다시 학문 탐구에 몰두하였다. 이 같은 조호익의 일생을 허목은 ‘덕의 아름다움이며 절개’라고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김성일, 유성룡, 정구와 더불어 이황 문하의 큰 제자로 알려진 이가 있다. 月川 趙穆(1523-1606)이다. 당시 예안현령이던 李碩寬이, 선현들의 遺籍을 찾던 중에 조목의 아들 趙錫朋으로부터 유고 4권을 받았다. 이것을 편집하여 문집을 간행하면서 이석관이 허목에게 서문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1662년에 쓴 「월천문집서」에서 허목은 조목의 인격과 업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우리 나라의 문명과 치화는 명종 선조 무렵에 가장 융성하였으니, 당시 월천, 고봉, 서애, 한강 같은 여러 현인이 도산 문하에서 무리 지어 나왔다. 이번에 월천유고를 보니, 도덕을 임무로 삼았는데, 말은 겸손하면서 形迹이 높았다. 지킴이 확고하고 뜻이 조출하였으며, 숨어살면서도 세상일을 잊지는 않았다. 행실을 구차하게 시대에 합하지 않았음도 그 글에서 볼 수 있다.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근심 속에 지은 것이 모두 우리의 도와 사람들에게 유익하니, 진실로 덕이 있는 자라야 훌륭한 말이 있는 것이다.

금상 2년에 李侯碩寬이 宣城의 원으로 나갔다. 이후가 선생의 맏아들 석봉으로부터 초고 4권을 받은 다음, 그것을 판각하여 널리 전하려고 나에게 편지로 문의하였다. 여러 글 중에 質疑와 疑義 두어 편은 전문을 그대로 실었다. 도산 문하에서 문답하던 모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조목은 퇴계 이황과 같은 고장 출신으로서, 스승을 곁에서 가장 오래 모셨다.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동문들의 뜻을 모아 도산서당의 뒤에 서원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였다. 서원이 세워진 뒤인 1576년에야 봉화현감이 되어 2년 간 봉직한 뒤에 귀향하였다. 그 뒤에도 계속 벼슬이 내려졌으나 한번도 취임하지 않았다. 월천서당에서 강학하면서 퇴계 문집을 간행하는 일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83세의 장수를 누린 그는 왜적의 침입을 당하여 전란으로 피폐한 나라를 걱정한 글이 많았다. 조목의 글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지나서야 판각이 되어 간행을 본 것이

다. 이석관의 요청을 받은 허목은 이 문집의 편집에도 간여를 하였던 듯, 윗 글의 뒷부분에는 “후가 이처럼 학문을 높이기에도 나도 외람 됨을 잊고서 대략 刪定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조목, 유성룡 등에 비하여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황의 제자 중에 南致利(1643-1580)가 있다. 이황이 세상을 떠났을 당시, 남치리는 28세의 청년이었는데, 많은 선배들이 있었는데도, 그가 相禮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10년 뒤에 38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허목은 남치리의 유저를 서울에서 보았다. 1651년 겨울 그는 지난 10월 이후로 내시교관이 되어 서울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에 그는 날마다 영남 선비들을 만났다고 한다. 그들을 통하여 남치리의 저작을 얻어 보았음을 적은 뒤에, 그는 이 책의 뒤에 짧은 발문을 남겼다.<sup>12)</sup>

참으로 훌륭하다. 현자의 나라에 隱君子가 있었으나, 세상이 능히 알아주지 못했다. 그 학문은 日用人事의 드러남으로부터 性命의 微妙한 데에 이르렀고, 그 말은 모두 問學의 깊은 공부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사람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이 많다. 禮와 易을 설명한 것이 특히 세밀한데, 곤궁한 때에도 깨끗하게 지킨 것은 옛날의 어진 사람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었을 것이다. 퇴계선생이 도산에서 융성하게 후진을 가르칠 때에도 제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았다. 공자의 “魯에 군자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를 배웠으리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깝다. 하늘이 수명을 주지 않아 일찍 죽었다.

결국 이황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남치리 같은 은군자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퇴계 이황의 문인들에 관한 기록은 조식의 문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평이한 편이다. 조호익이 불운을 겪었고, 남치리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유성룡도 쓸쓸한 만년을 보내야 했다. 이정과 유성룡, 조호익, 남치리 등 이황의 제자들은 각기 삶의 모습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다. 평생 학문 탐구에 몰두하여 강학을 하고 후생을 길렀으며, 저술을 남

12) 『기언』 별집 10권, 「서남비지유권후」.

긴 것이다. 이 점이 허목이 그 제자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이황을 대현이라고 존경하였던 이유였던 것이다.

### (3). 정구와 그 문도들

정구(1543-1620)는 김우옹과 함께 조식과 이황의 문하에서 배운 학자이다. 정구를 따로 다루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허목이 그를 통하여 영남 유학을 배웠으며, 정구의 문하에서 수많은 문도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기언』에는 영남의 유학자들 가운데 정구와 관련된 글이 가장 많이 실려 있다.<sup>13)</sup> 또 정구에게 입문하기 이전의 스승인 文緯에게는 행장을 지어 바쳤고, 정구의 姨姪婿로서 그와 종유하였던 張顯光에게는 제문을 지어 그 죽음을 애도하고 1673년에는 신도비명을 지었다. 그리고 정구 문하의 동문 선배로서 배상룡에게는 애사를 지었고, 나중에 묘갈명을 지어 그의 일생을 정리하였다. 또 정인홍의 문인으로 더 알려진 정온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제문을 지어 조상을 하였고, 행장을 지었으며, 문집을 간행할 때에 발문을 지었다. 그리고 정구 계열의 학자들인 이운우 이도장 부자의 일생을 기린 「석담이공묘갈명」과 「중이조참판이공묘비명」이 있다.

정구의 일생을 가장 소상히 기록한 것은 「文穆公擴銘」이다. 이 글에는 정구의 생애의 주요 행적과 학문적 업적,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포상 등을 연대순에 따라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이 글의 도입부에 정구의 선대 세계와 출생기사를 간략히 정리한 뒤에, 정구의 학문적 수학 과정을 먼저 적었다.

정구는 21세에는 이황을 찾아가 『心經』을 수강하고 학문하는 방법을 알았다. 3년 뒤에는 조식을 찾아가자, 조식은 군자의 대절로 인정하였다.

13) 「한강정선생만사」·「문목공광명」·「한강선생문집서」·「제오선생에설후」·「알회원 문목묘문」 등이 있다.

1580년에 창녕현감이 되었는데, 임금이, “이황과 조식은 그 학문이 어떠한가?”라고 묻자, “황은 신조가 篤實하고 공부가 醇熟하며, 식은 超然自得하여 獨立特行합니다.”라고 하였다. 창녕현감을 시작으로 하여, 동북, 함안, 통천, 강릉 등의 고을을 거쳐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그 뒤에는 성천, 충주, 안동부사 등 주로 외직을 맡아서 선정을 베풀었다. 특히 학문을 권장하고 선비를 교육하여 향풍을 진작시킨 업적이 많았고,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저술을 남겼다.

광해군 즉위 년에, 정구는 임해군을 살려 주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으나, 결국 임해군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 몇 해 뒤인 1613년과 1618년 사이에는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하는 사건이 있었다. 시골에 물러나 강학과 저술에 열중하였던 정구는 1620년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3년 뒤, 문인들은 회연서원에 위패를 봉안하였고, 바로 이어서 인조가 즉위한 뒤에 賜祭하고, 관작을 추증하였으며, 文穆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한강선생문집서」는 1680년 2월, 허목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쓴 글이다. 그는 그 앞 해에 허적을 탄핵한 뒤에, 연천에 돌아와 칩거하던 중이었다. 이 글은 앞에 소개한 「문목공광명」와 줄거리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글과는 달리 조식에게 수학하였던 사실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선조 말년 즈음에 충주목사로 재직 중에 조정의 부름을 받고 經書義를 교정하고 『五先生禮說』, 『心經發揮』를 완성한 것을 적었다.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정인홍과 절교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즈음은 선조 말년에 복인이 정권을 주도하면서, 정인홍이 전면에서 나섰던 시기였던 것이다. 이 글의 뒷부분에도 허목은 정구의 인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선생은 겸손하고 예절이 있으며, 敦厚하고 忠信하였다. 몸으로 예의를 실천하니, 사방의 학자들이 선생을 宗師로 받들었다. 영남지방은 예로부터 군

자의 고장으로 일컬어 왔는데 이제 선생의 향리 사람들은 선한 것을 편히 여기고 禮讓을 알아, 鄒魯에 비길 만 하다고 말한다.

1620년 정구가 세상을 떠나자, 허목은 스승을 위하여 3개월의 상복을 입었고, 장례에 참여하여 만사를 바쳤다. 이 글에서 허목은 “神化를 窮究하여 自得하였고, 精微함에서 廣大함을 이루었네, 退陶의 正脈을 이어, 보고 깨우치었네. 先人이 닦은 遺蹟을 이어서, 撰述하여 發揮하였나니, 실로 古人을 따라가 짝을 이루어, 앞선 이와 뒤따른 이가 일치하였네.”<sup>14)</sup> 라고 하였다. 허목의 만년에 지은 이 글에서 “사람들이 종사로 받들었다”고 적은 것이다.

정구에게 허목을 인도한 이가 文緯이다. 문위에 대하여는 허목은 「모계선생행장」을 남겼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선생의 휘는 緯, 거창에서 살았다. 약관에 남명선생의 장례에 가서 예절을 살폈고, 吳德溪에게 周易을 배웠으며, 뒤에는 한강 정선생에게서 성현의 요지를 들었다. 이후 힘써 실행하여 명망이 영남에 높았다. 왜적이 쳐들어오자, 선생은 고을의 젊은이들을 모집하여 의병장 金沔의 幕下에 들어갔다. 유성룡과 김우옹이 각각 추천하여 선조 말년에 동몽교관이 되었다. 사헌부 감찰이 되었을 때, 광해군이 등극하고 정인홍이 用事하면서 임해군 옥사가 일어났다. 당시 한강선생이 대사헌으로 劄論을 돕다가 쫓겨나고, 대신들도 모두 문을 닫고 들어앉았다. 선생은 “떠나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라.”하고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정인홍은 합천 출생으로 儒術을 한다는 이름을 빌어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그 성품이 남을 시기하고 각박하여 은의를 해쳤다. 또 선현들을 모멸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 폐단이 경상우도를 휩쓸어 풍속이 크게 물들었는지라, 선생은 강학에만 힘썼다. 매양 제자들을 대하면 義利와 邪正의 분변을 극론하여 인심을 맑게 하고 세상을 구제하기를 임무로 삼았다. 인조 초년에 고령현감이 되었으나, 당시 인심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보고서 “도가 더욱 쇠하겠구나.”라 말하고 고향으로 돌아 왔다. 인조9년에 78세로 운명하였다.

14) 『기언』 별집 13권, 「한강정선생만사」.

선조 말기 광해군 초년에 일시 벼슬길에 나갔다가 정국이 어지러운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와 강학에 힘쓰기는 정구가 그랬던 것과 같았다. 청년 시절의 허목이 거창으로 찾아간 것은 바로 이 시기였으니까, 문위에 대한 기사는 허목이 보고들은 실제 기록이었다. 위의 글에 이어서 허목은 다음과 같은 말을 지어 문위를 추모하였다.

선생은 친품이 고상하고 일찍부터 도를 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여러 군자의 門庭을 다니면서 학문을 쌓고 몸소 실행하여 마음으로 도를 체득하였다. 만년에 더욱 성취하여, 숨어살면서도 세상을 잊지 않고, 궁하여도 의리를 잃지 않았다. 도를 즐겨 근심을 잊었으니, 넉넉히 군자다운 절도를 볼 수 있다.

허목이 보기에 정구는 이황으로부터 대도를 들어 사람들의 종사가 되었고, 문위는 정구로부터 성현의 요지를 들어 그것을 실천하여 도를 체득한 군자였던 것이다.

정구의 문인으로서 허목이 오랫동안 교유한 이가 있다. 藤菴 裴相龍(1674-1655)이다. 두 사람은 함께 정구의 문하에서 수학 하였고, 1620년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문생의 반열에 서서 조문을 하였다고 한다. 동문의 선배이지만, 허목 보다 20여세가 많은 부형 뺨의 선배였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허목이 서울에 있을 때 배상룡은 『오선생예설』을 전해 주었다. 이후 병자호란 뒤 허목이 영남에서 지낼 때에, 배상룡을 자주 찾아가 老德으로 섬겼다고 한다. 1655년 배상룡이 작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허목은 침문 밖에서 곡을 하며 슬퍼하였고, 장례에 애사를 지어 바쳤다고 한다. 「등암처사묘명」은 그의 삼년상을 마친 1657년에 그 아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은 것이다.

배상룡은 젊어서 한강선생을 사사하여 군자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의 부친은 수군절도사 배설이었는데, 통제사 이순신의 휘하에서 일하다가 죄를 지어 비명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배상룡은 이름을 숨기고 농사를

지어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어린 동생 배상호를 직접 가르쳤는데, 그의 학업이 날로 성취하여 글 잘하기로 이름이 났다. 그는 태학에 유학하였으나, 일찍 죽었다. 이에 상심한 배상룡은 인사에 더욱 관심을 잃었다. 그를 추천하는 이가 있었지만, 달가워하지 않았으므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독실한 행실이 친족을 친애하고 더욱 나아가 소원한데까지 미쳤으므로, 일문이 다 가르침을 勸勉하였다. 가장 중히 여긴 것은 관혼상제이다. 그가 작고한 뒤에도 그의 遺風과 餘薰을 자손들에게 볼 수 있다. 이상은 배상룡의 묘갈에 기록한 그 일대기의 줄기이다. 허목은 그 뒤를 이어서 다음과 같은 명문을 지어 바쳤다.

아! 보배를 품고 숨어살아, 알아주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네. 확고하며 온화하여, 성실하고 자만하지 않으니, 향인이 畏服하였다. 고상한 노덕이었네.<sup>15)</sup>

배상룡은 일찍부터 실친 궁행에 힘썼다. 불우한 처지가 되었으나, 몸을 숨겨 드러내지 않은 것이 더욱 돋보이는 그의 인격이었다. 특히 허목에게는 한강 문하에서 만났을 때부터 40년 가까운 교유를 한 벗이요 선배였다.

『기언』에 실린 영남유학자들의 전기 문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 실린 것이 정온에 대한 기록이다.<sup>16)</sup> 허목은 일찍이 1642년 정동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늘이 사문을 망쳤으니, 어찌 나라만 병들겠는가?”라 탄식하고서 글을 지어 애도하였다. 그것이 『기언』 권10, 《인물》편에 실린 「곡동계문」이다. 그 10년 뒤 1652년 3월, 남도로 유람을 하던 중에 일부러 길을 틀러 정온의 옛 집을 방문하였다. 그 2년 뒤인 1654년에 행장을 지어 바쳤고, 1660년 정온의 문집이 간행될 때에는 발문을 지

15) 이보다 앞서 배상룡의 죽음을 듣고서 지은 애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확고하고도 온화하다. 잘 지켜 바꾸지 않았다. 그 행실이 닳지도 않았고 검게 물 들지도 않았구나.”

16) 「곡동계문」(1642), 「동계정선생행장」(1654), 「동계문집발문」(1665)이 있다.



었다.<sup>17)</sup>

정은(1569-1642)은 안의현 역동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부친 역양선 생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갈천을 뵈고 그 뒤에는 월천과 한강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다. 당시 정인홍이 영남에서 높은 명망을 가지고 강우의 학도를 끌어들이며 ‘내암제자’라 부르며, 규율이 엄격하였다. 정은도 처음에는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1608년에 정인홍이 유영경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죄를 얻게 되자, 정은이 상소로 해명하였다. 그 뒤에 임해군을 상변한 사건이 일어나자, 그는 정인홍에게 편지를 보내, 쏘愿을 주장하고 봉당의 폐단을 논하였다.

광해군 2년(1610) 별시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 해에 정언으로서 임금에게 극간 하다가 북변의 경성판관으로 좌천을 당하였다. 얼마 뒤에 대북 일파가 논공을 하였는데, 그가 일찌기 정인홍의 죄를 해명하였다고 하여 장악원 첨정이 되었다. 그러나 영창대군을 모해하는 등 대북정권의 악행이 끊이지 않자, 이이첨과 절교를 하고 구실을 만들어 고향으로 돌아 왔다. 여러 달 뒤에 다시 성균 사예, 시장원 필선 등 관직을 받았다. 이 때에 대북이 영창대군을 죽이자, 그는 수백 자의 소를 올려 광해군에게 극간 하였다. 광해가 그를 죽이려 하였고 이 때에 정인홍도 그를 처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원익 등 대신들이 나서서 보호하여 죽음을 면하고 제주에 위리안치되었다.

1623년 반정이 된 뒤에야 풀려 나와 헌납을 거쳐 사간으로 입사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난날에 죄인 정인홍을 스승으로 섬긴 것을 들어 사간을 사양하였다. 이후 남원부사로 내려갔다가 이조참의 도승지 영남관찰사 병조참판, 부제학 등을 거쳤다. 이런 중에도 인성군 옥사에 전은을 주장하였고, 인조의 생부를 추송하여 종묘에 배향하자, 장문의 소를 올려 極諫하였다. 경연에 입시 하였을 때, 임금이 “정경세는 이미 죽었고, 장현

17) 정은의 「동계선생행장」, 조식의 「덕산비」, 정구의 「문목공광명」과 함께 「동서기인」은 『기언』 권39에 실려 있다.

광도 늙었으니 경은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간관으로서 爭諫 하다가 귀향하였다. 다시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배움을 입고 나물반찬을 먹으며 시골선비처럼 살았다. 인조 14년(1636) 인열왕후의 초상 때문에 올라 왔다가 예조참판이 되었다. 이후 대사헌을 거쳐 이조참판이 되었는데, 그 해 말에 오랑캐가 대거 침입하였다. 군신들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을 하였다. 성안에 고립되어 있으면서 주화론과 척화론으로 갈라졌는데, 그는 줄곧 척화를 주장하였고, 주화론자인 최명길의 문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에 들어간 지 월여 만에 강도가 먼저 함락되었다. 그곳으로 피난을 하였던 비빈과 대신들이 사로잡히자, 결국 임금은 산성 문을 열고 나가 청주에게 항복을 하고야 말았다. 이 때 어가가 성을 나선다는 말을 듣고서 그는 “나라가 망한다 하여도 임금으로서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것은 내 수치이다.”라 말하고, 칼을 뽑아 스스로 배를 찔렀다. 임금이 성을 나올 무렵 그는 까무라친 채, 고개를 쳐들고서 “대명에서 받은 옥새를 오랑캐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부르짖었다.

그 다음 달에 고향에 실려 내려갔다. “주상이 옥을 당하였으니 신하의 죽음은 이미 늦었다.”라 하고 금원산 골짜기에 들어가 산을 일구어 조를 심어 먹고살았다. 해가 바뀌더라도 새 책력을 보지 않았고, 세속과 발길을 끊은 채 초목이 변하는 것으로 계절을 짐작하였다. 결국 그 4년 뒤인 1641년 세상을 떠났다.

그 뒤 1660년, 정온의 손자 정기수가 문집을 간행할 때, 조경에게 서문을, 허목에게 발문을 요청하였다. 허목이 지은 발문은 『기언』 권10 인물편에 「동계유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여기에서 허목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공은 벼슬하면서 直道 때문에 배척을 받았고, 直道를 가지고 이름이 났으며, 直道를 가지고 몸을 죽이고도 후회하지 않았으니, 옛 사람이 남긴 義理이다. 지금 그 遺文을 읽으니, 외로운 충성이요, 곧은 도이다. 백대를 전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글이다. 공의 도는 위로는 일월과 함께 빛을 다루고,

아래로는 愚夫愚婦도 모두 눈물을 흘린다.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성실하면 專一하고, 전일하면 끝다. 끝으면 죽음에 이르러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큰 어려움을 범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굳세구나. 우뚝 솟았도다. 萬夫의 소망을 이루었으니, 위대하도다. 하늘 아래의 만물 중에 산악도 무너질 때가 있고, 금석도 훼손될 때가 있다. 그러나 지극한 정성이면 훼손되지 않는다. 공의 글은 백대가 되어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백대가 지나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허목에게서 이러한 찬사를 받은 이는 다시없었다. 정온에 대한 허목의 존경은 각별한 것이었다. 정온은 갈천 월천 한강, 그리고 정인홍에게서도 배웠다. 그러나 정인홍이 불의에 빠지자, 간언하며 다투다가 결국 背師 하면서까지 자신의 直道를 지켰다. 이러한 직도를 가졌기에 스승과 그의 당이 패망하였을 때에, 그는 오히려 돋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직도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나라가 오랑캐에게 항복을 하려 하자, 죽음으로써 그것을 막고자 하였다. 결국 항복한 나라의 조정에서 지내지 않고 산중에 들어가 직접 농사를 지어 생계를 잇다가 세상을 마친 사람이 정온이었다. 허목은 이러한 정온의 정신을 담은 문집의 발문을 『기언』의 인물 편에 넣어 두었던 것이다.

### Ⅲ. 결론 : 허목이 본 영남학자들

앞에 소개한 전기 자료는 영남 출신 학자들, 그 중에도 이황과 조식의 영향을 받은 선비와 학자들로 국한을 한 것이다. 그 이유는 허목이 살았던 시대와 역사적 공간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허목이 기록을 남긴, 조식과 이황의 문인들은 삶의 양상들이 매우 다양하였다.

그런 중에도 조식과 최영경, 조종도와 곽재우, 이제신 등은, 그들이 가진 정신세계는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굽히지 않는 높은 기상과 우뚝한 절조이다. 최영경은 죽음을 무릅쓰고 권력에 맞섰고, 조종도는 활

달한 성품 속에 높은 기상을 감추는 듯 하였으나, 왜적의 침입에 몸을 바쳐 싸웠다. 의병 활동에 공이 컸던 곽재우는 혁혁한 무공에 걸 맞는 높은 관직을 받았으나, 이를 물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본시 이름 있는 선비였던 도구공 이제신이 숨어살았던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그 역시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방외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것을 실행하였기에 그들의 삶은 당당하였던 것이다.

이황의 영향을 받은 문인들은 학문 탐구와 후진 양성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살려 나갔다. 나라의 수상으로선 전장을 책임졌던 유성룡도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향리에서 저술 활동에 전념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던 이정이나, 전란을 겪었던 조호의 두 사람 모두 생애의 마지막을 은거 강학하는 학구적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마쳤다. 80여년의 장수를 누린 조목과 마찬가지로 불과 40년도 못되는 단명에 그친 남치리는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받은 정신은 저술에 담아 후대에 전한 점은 동일하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숨쉬며 살았던 시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김우옹과 정구는 이황과 조식 두 사람에게서 고루 배웠다. 그들은 청백한 절조와 끝없는 탐구 정신을 함께 가졌다. 특히 정구는 이황의 정맥을 이어 받아 더욱 넓고 깊은 학문으로 재생산하였다. 그리하여 일대의 종사가 되었다. 정구와 그의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도 심각한 갈등으로 점철된 시대였다. 광해군 시대의 난정을 끝은 도로써 버터 갔던 정운은 호란이라는 위기를 맞아서 목숨을 걸고 더욱 강한 저항정신으로 세상과 맞섰다. 결국 세상이 그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자, 산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살았다.

이러한 삶들에 대하여 허목이 가장 큰 애정을 갖고 기록한 것은 정운이 삶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 이유는 그의 삶이 가장 치열하고 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허목은 이황의 문인들의 삶에 대하여 골고루 높

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본다. 그렇다면, 허목이 이러한 전기 자료를 통해 읽어낸 영남 유학의 근본정신은 무엇이었을까? 드높은 정신적 절조일까?, 후세를 위한 입언수후일까?

투고일 2003. 7.4 심사시작일 2003. 7.7 심사완료일 2003. 7.22

*Abstract*

## Mi-Su Heo-Mok and a Young-Nam doctrinal faction

An, Byung-geo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learning what is handed down to Mi-Su Heo-Mok(眉叟 許穆) from Young-Nam doctrinal faction(嶺南學派). And we are willing to consider it.

In Gi-Eon(記言), it has much material that was distributed everywhere and also has many records of scholars from Young-Nam province. Thus, we can understand that there was many interchange between Mu\_Su Heo-Mok(眉叟 許穆) and scholars of Young-Nam province. Documents that connected with Young-Nam doctrinal faction can classified in three parts.

The first is that related to Nam-Myung Jo-Sik(南冥 曹植) and his literary men.

The second is that related to literary men of Toe-Gae Lee-Hwang(退溪 李滉).

The third is that related to Han-Gang Jeong-Goo(寒岡 鄭述) and his literary men.

The scholars belong to first classification are Choi-Young-Gyung(崔永慶), Lee-Je-Sin(李濟臣), Jo-Jong-Do(趙宗道), Gwak-Jae-Woo(郭再祐), Bae-sin(裴紳) (started with Nam-Myung Jo Sik(南明 曹植)) and Kim-Woo-Ong(金宇顥), Jeong-Goo(鄭述),(student under Lee-Hwang),

etc. Also it has materials related to Ha-Heung-Do(河弘圖) who get learning of Jo-Sik(曹植) from Ha-Hang(河沆) and Ha-Soo-Il(河受一). And Kim-Chang-Il(金昌一) who was literary men of Choi-Young-Gyung can also classified into this. Generally, Heo-Mok's recognition to Nam-Myung literary men is superior and high disposition that cannot change there living and high integrity.

In second classification, there are literary men contain that You-Seong-Ryong(柳成龍), Lee-Jeong(李禎), Jo-Mok(趙穆), Jo-Ho-Ik(曹好益), Nam-Chi-Li(南致利), Jeong-Goo(鄭述), Kim-Woo-Ong(金字顯), persons of family that Kim-Tong(金涌), and Lee-Young-Do(李詠道). In comparison to literary men of Jo-Sik, The record of literary men of Lee-Hwang from Heo-Mok(許穆) is relatively simple. Each disciples of Lee-Hwang has different living. But, literary men of Lee-Hwang keep their spirit into their whole life through the activities which giving lectures, bringing up disciples, literary work, etc. From following reasons, Heo-Mok respected Lee-Hwang as the calling him the Dae-Hyun.

In third classification, there are literary men that Jang-Hyun-Gwang(張顯光), Jeong-On(鄭蘊), Bae-Sang-Ryong(裴相龍), etc. from Jeong-Goo. The reason that Heo-Mok is taking a series view of Jeong-Goo has two reasons. One is that Heo-Mok studied Young-Nam confucianism from Jeong-Goo and the other is that there was produced a large numbers of disciple. They had integrity and spirit of endless studying. From Lee Hwang's stream of learning, Especially, Jeong-Goo reproduce it more widely and deeply. Thus, He was be the master of the age.

The biological materials as studying object from this study are limited to scholars from Young-Nam province and influenced by

Lee-Hwang and Jo-Sik among them.

The reason is that scholars from Young-Nam province was together with the age of Heo-Mok's living and Historical space.



Mi-Su Heo-Mok(眉叟 許穆), Gi-Eon(記言), Young-Nam doctrinal faction(嶺南學派), Nam-Myung Jo-Sik(南明 曹植), Toe-Gye Lee-Hwang(退溪 李滉), Jeong-Goo(鄭述).



## 眉叟 許穆과 嶺南學派

안 병 결

본 연구의 목적은 眉叟 許穆이 嶺南學派에서 전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記言』에는 곳곳에 분산하여둔 전기 자료가 많이 보인다. 거기에는 영남 출신 학자들에 대한 기록도 풍부하게 남아 있어 그가 영남의 학자들과 다양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 정리한 영남학과 제현들과 관련된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南冥 曹植과 그 문인들.

둘째, 退溪 李滉의 문인들.

셋째, 寒岡 鄭述와 그의 종유 문인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인물로는 南明 曹植을 위시한 崔永慶, 李濟臣, 趙宗道, 郭再祐, 裴紳 등과 이항의 문하에도 출입한 金宇顒, 鄭述 등이 있다. 또 조식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았으나, 河沆과 河受—을 통하여 조식의 학문을 접한 河弘圖에 대한 글이 있다. 그밖에 최영경의 문인인 金昌—을 이 범주에 넣어도 무방할 것이다. 대체로 남명 문인들에 대한 허목의 인식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지 않는 탁월하고 높은 기상과 우뚝한 절조에 있었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인물로는 退溪 李滉을 정점으로 하여 柳成龍, 李禎, 趙穆, 趙호익, 南致利, 鄭述, 金宇顒 등의 문인과 이항의 손자 李詠

道와 손서 金涌 등의 일가의 인물이 있다. 허목의 퇴계 이황의 문인들에 관한 기록은 조식의 문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평이한 편이다. 이황의 제자들은 각기 삶의 모습은 달랐다. 그러나 평생 학문 탐구에 몰두하여 강학을 하고 후생을 길렀으며, 저술을 남기는 등의 학문 탐구와 후진 양성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살려 나갔다. 이러한 이유로 허목은 이황을 대현이라고 존경하였다.

세 번째 부류로는 정구를 중심으로 하여, 張顯光, 鄭蘊, 裴相龍 등이 있다. 정구를 허목이 중시하는 이유는 그를 통하여 영남 유학을 배웠으며, 정구의 문하에서 수많은 문도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청백한 절조와 끝없는 탐구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정구는 이황의 정맥을 이어 받아서 더욱 넓고 깊은 학문으로 재생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鄉風을 진작시켜 일대의 종사가 되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전기 자료는 영남 출신 학자들, 그 중에도 이황과 조식의 영향을 받은 선비와 학자들로 국한을 한 것이다. 그 이유는 허목이 살았던 시대와 역사적 공간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眉叟 許穆, 記言, 嶺南學派, 南明 曹植, 退溪 李滉, 鄭述